도고온천 주변

도고온천의 역사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최고의 도고온천은 고대, 이요의 온천, 니키타쓰의 온천 이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이 도고라고 불리어지게 된 것은 645년의 일입니다. 흥미 깊게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한마리 백조가 바위 틈에서 분출되는 온천을 발견하여, 다리를 담그자 상처가 완전히 나아서 힘있게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목욕을 하자 상쾌하고 피로가 회복되며, 병자도 어느샌가 쾌유됐다는 이야기에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고 온천 본관은 2019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보존 수리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층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1층 카미노유는 입욕이 가능합니다.

신로각

중요 문화재

⑭ 도고온천 본관

이요철도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5분, 마쓰야마IC에서 약8.5Km
고풍에 풍격있는 목조 삼층누각의 공중목욕탕으로, 넓은 가미노유, 조금 아담한 다마노유의 2종류 · 다섯개의 욕실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신로각"에는 남기고싶은 [일본의 풍경 100선]에 선정된 도키다이코 장구가 달려있어 오전6:00 · 정오 · 오후6:00에 북을 칩니다.

【유신덴】
메이지32년에 세워진 황족전용의 목욕탕으로, 현관방, 거실 옆방, 옥좌방으로 되어있어, 그옆에는 경호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무사은닉처(방)가 있습니다. 입욕할 수는 없지만 관람(유료)할 때, 담당직원이 설명합니다.

⑮ 마쓰야마시립 시키 기념박물관

이요철도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4분, 마쓰야마IC에서 약8Km
근대 하이쿠의 선조라고 전해지는 마사오카 시키를 중심으로, 나쓰메 소세키나 마쓰야마시가 배출한 문인들의 업적을 집대성한 문학계의 박물관입니다.

⑯ 도고공원(유즈키성뒤)

시내전철[도고공원 앞] 근처, 마쓰야마IC에서 약8Km
메이지19년에 공원으로서 정비한 이래, 벚꽃의 명소, 시민들과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유즈키성뒤의 발굴조사를 토대로 무사저택등을 복원, 출토유물등도 공개 되어 산책하면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원입니다.

⑰ 도고호조엔 (아시유)

도고온천 본관에서 사용되는 원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피곤한 발을 따뜻한 온천에 담그어 피로를 풀어봅시다.

⑱ 봇짱 장난감 인형 시계

경쾌한 멜로디를 타고 [봇짱]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㉟ 이시테지 절(제51번 후다쇼)

JR마쓰야마역에서 버스로 약20분, 마쓰야마IC에서 약9Km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니오몬 문은 전국굴지의 누각문으로, 기와를 이은 복층지붕, 안에 안치되어 있는 곤고리키시 상은 운케 파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⑲ 세키 미술관

이요철도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5분, 마쓰야마IC에서 약9Km
구로다 세이키, 고이소 료헤 등 근 · 현대작가의 서양화와 일본화, 로댕의 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⑳ 유 신사

시내전철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5분
유 신사는, 도고온천의 수호신으로 오쿠니노미코토와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가 모셔져 있습니다.

㉑ 이사니와 신사

이요철도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15분, 마쓰야마IC에서 약8.5Km
마쓰야마한, 마쓰타이라3대 한의 주인인 사다나가가 에도성에서 행해진 야부사메의 대원성취의 보답으로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 본전은 우사 · 이와시미즈료하치만과 함께 일본에 3개밖에 없는 하치만조로서 나라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㉒ 도고상점가 (도고 하이카라 도리)

여행의 에티켓

●숙박시설에 대하여… 여관에서는 유카타 · 조리차림으로 복도를 걷거나 목욕탕에 가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방을 나오면 유카타나 슬리퍼로 돌아다니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나지만, 온천시설 등이 있는 호텔에서는 무관하므로 숙박시설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입욕에 대하여… 탈의실 바구니나 라커는 1인 한개가 상식입니다. 1인이 여러개를 사용하지않도록. 대욕탕에서는 머리카락이 탕안에 닿지 않도록 긴머리는 고무 등을 사용하여 머리를 묶어 주십시오. 또한 탕안에 들어가기전에 반듯이 물을 끼얹고, 깨끗하게 한 다음 들어갑시다. 목욕타올로 감거나 수영복을 입은 채로 탕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타올은 탕안에 담그면 비위생적이오니 하지 맙시다. 탈의실에는 몸의 물기를 잘 닦은다음 돌아옵시다.

●팁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현재 서비스료 형태로 되어 있어 숙박대금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실담당이나 나카이상에게 반듯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